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나수*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알고마대학교는 캐나다 토론토 안에 있는 수세인마리라는 작은 지역이며 캐나다 땅이 넓어서 그런지 땅이 넓으며 시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세인마리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서로 굉장히 친하며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안에서의 분위기 또한 굉장히 편하고 학교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수업은 캐나다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학교소개를 시작으로 이루어졌으며 첫째 주는 주로 앞으로의 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 될 것이며 학교나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알고마 대학으로 가게 된 학생수는 10명이였기 때문이였는지 몰라도 모두 한반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방식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여서 교수님께서 계속 말을 걸고 대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수업의 마무리는 일기형식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수업을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해주셨고 학생들이 어떠한 의견을 말하든 그 의견을 존중해주셨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학교에서 대부분 준비해주셨고 과제는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Activity	알고마대학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봉사활동과 그 지역의 축제, 딸기따기, 모카신 만들기, 하이킹, 물놀이, 박물관 등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한국 문화를 외국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직접 설명하고 몸으로 보여주며 하는 문화교류 봉사활동과 지역 축제가 열릴 때 그 축제의 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기뻐 해서 기분이 좋았고 지역축제 봉사를 통해 그 지역의 문화를 조금 더 알아 갈 수 있어 뜻 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하이킹과 물놀이 등 유명한 장소에 가서 직접 몸으로 체험

	<p>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에는 모카신 만들기, 박물관 방문 등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수업보다는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어학연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활동의 경비는 학교 측에서 준비해줬고 개인이 준비할 것은 그날의 날씨에 따른 옷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캐나다 여름 기후는 한국 여름처럼 많이 덥지는 않으나 햇빛은 한국보다 배로 쎈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날씨처럼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어 긴 옷을 여벌옷으로 챙겨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햇빛이 강해 선글라스는 필수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마대학이 위치해 있던 수세인마리 지역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이용했으며 여름에는 해가 길어 저녁 9시에도 해가지지 않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강하지만 덥지는 않은 아이러니한 지역이긴 하지만 얇은 옷 위주로 가져가기 보다는 날씨를 확인해 긴 옷을 여벌옷으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옷을 챙겨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본인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p>
안전	<p>수세인마리 버스는 밤 11시 15분이 마지막 버스이며 해가 길어 9시까지도 밝지만 해가 지면 가로등이 많이 없어 굉장히 깜깜합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어 밤늦게 돌아다니기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두워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p>
숙소	<p>제가 배정된 홈스테이에는 주인집 할머니와 일본인 친구가 살고 있는 지하와 2층집이 있는 총 3층 집이었습니다. 비행기연착으로 밤늦게 도착했지만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오자마자 배는 안 고프냐며 배고프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잠들기 전에는 큰 포옹을 해주셨고 가족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지냈던 일본인 친구도 같은 나이여서 친구처럼 지냈으며 같이 요리도 하고 다음 날 먹을 점심도 같이 준비하며 편하게 지냈습니다. 캐나다는 물 값이 시간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샤워는 7시부터 11시 사이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키기로 했고 캐나다 화장실은 거의 대부분 건조식 화장실이 였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튀지 않게만 조심하면 크게 불편할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큰 규칙은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 기타()</p> <p>캐나다에서 식사는 아침은 간단한 토스트나 샌드위치로 했으며 점심은 전날 먹은 저녁에서 남은 음식이나 홈스테이 엄마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녁은 항상 홈스테이 엄마께서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끼리 밖에서 먹고 들어 갈 때도 있었습니다.</p>
교통	<p>1달용 버스카드를 받고 학교 간 첫 날 룸메이트가 버스 타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은 버스를 타고 다녔고 학교를 다니며 주변을 살피니 길을 알게 되었고 학교와 집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은 1주일만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는 30분마다 한 대씩 있고 오후 6시 이후로는 1시간에 한 대씩 막차는 오후 11시 15분이었습니다. 또한 수세인마리 버스는 모든 버스의 종착지는 터미널로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하차타이밍을 놓치면 종점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는 편리한 버스시설이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면세점	300,000	선물
밥	150,000	캐나다에서 사먹은 밥
미국	50,000	미국에 가서 쓴 돈
캐나다	300,000	캐나다에서 산 기념품이나 군것질 등
합계	8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는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은데 비해 해가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며 긴 옷들도 챙겨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기가 많은 편이어서 뿌리는 모기약이나 바르는 모기약 등이 필요하며 활동 중 하이킹과 걸어다니는 것도 있어 운동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가서 한국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마트 찾는 것도 힘들고 라면은 많은 곳에서 팔지만 한국 쌀을 파는 곳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는 쌀을 먹어도 타이 쌀을 주로 먹기 때문에 고추장과 햇반을 위주로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캐나다에서 산 기념품 등을 담아 오려면 캐리어의 여유자리를 생각하고 짐을 챙기는 것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 홈스테이집에 새벽에 도착했을 때 첫 날부터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 늦은 밤에도 방을 하나하나 소개시켜주고 편히 쉬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룸메이트와 첫 만남을 가지고 같이 학교에 가며 자기 소개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서 하루 이틀정도는 시차도 그렇고 낯선 방 이어서 그런지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앞으로 3주간 어떻게 지내야하나 걱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였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우리 집처럼 익숙해졌고 홈스테이 엄마도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 가도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하느라 시간가는 줄을 몰랐고 한국에서도 못해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다녀 온 캐나다 수세인마리는 세계에서 큰 호수 5개 중 속해 있는 호수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미국으로 건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말을 보낼 때 홈스테이 엄마께서 저와 룸메이트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주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도 멋있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또한 많이 아름다웠습니다. 홈스테이 엄마께서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룸메이트 또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챙겨줍니다. 낯선 타지에 와있지만 그러한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되었던 음식 부분에서는 캐나다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짜서 걱정이 되었지만 한국음식을 가져가 다행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한국문화를 너무 좋아해 한국으로 유학까지 간 학생의 어머니께서 한국친구들을 보고 싶다며 저희와 일본친구들을 초대해 각 나라의 유명한 음식을 서로 만들어 다 같이 만들어먹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파티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동안 서로 홈스테이 하고 있는 집에 놀러가 파티를 즐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게임도 하며 더욱 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날 룸메이트와 학교를 같이 가고 이틀 날 아침에는 혼자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버스내리는 곳을 착각하여 잘못 내려 길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무서웠지만 친절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 학교를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착하고 친근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하루 하루 빠지지 않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제일 뜻 깊었던 것은 저희가 캐나다에 갔을 때 마침 그 지역의 축제가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룸메이트 친구들이 다 같이 그 축제에 참가했고 그 축제 덕분에 그 지역의 문화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의 축제 날짜 확인 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말에는 학교에서 한국친구들 다 같이 하이킹과 해변에 가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캐나다는 땅이 넓어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 하늘이 더욱 넓고 높아 보였는데 하이킹과 해변에 가서 보니 한국보다 몇 배로 예뻐 보였습니다. 아마 그날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을 것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날이 더우면 집 앞 마당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만큼 물을 좋아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고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이 넓어 도로는 넓으나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조용하고 횡단보도도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큼 차가 사람을 많이 양보합니다. 하루 하루 매일 바쁘게 사는 한국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단기어학연수를 신청할 때에는 여행느낌이 더 크겠거니 생각했는데 다녀 와보니 영어 공부에 욕심도 생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처음 해외에 나간 이유 때문인지 정말 인상 깊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교환 학생을 통해 영어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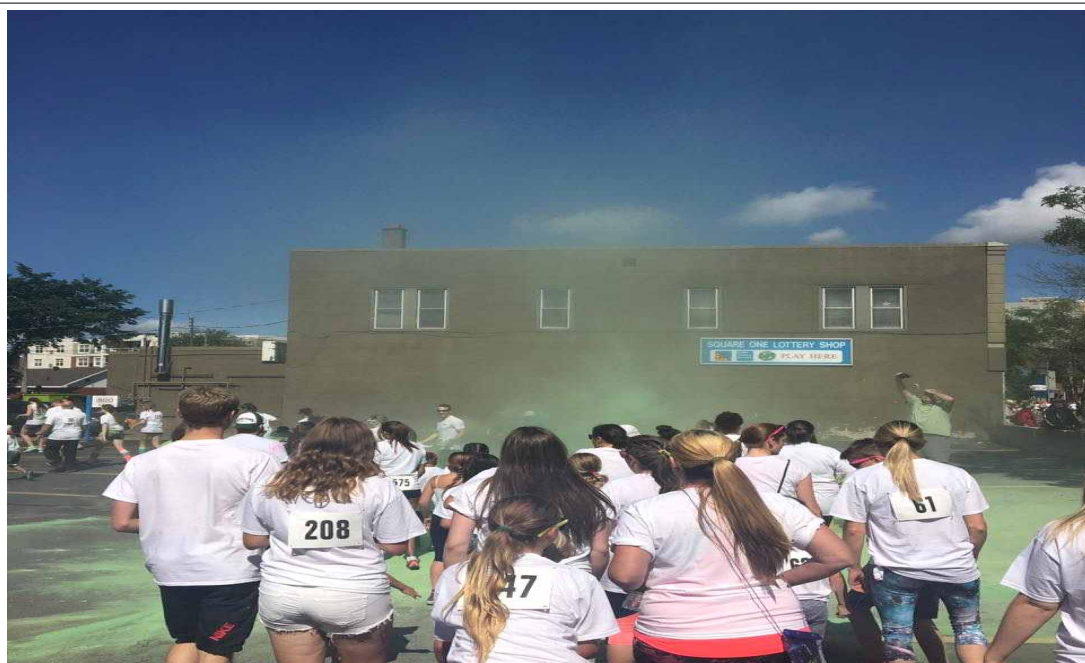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한국어로 이름쓰기, 젓가락 사용법 등 여러 가지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역 축제에 임원으로 참가하기 전 단체사진입니다.



지역 축제에 직접 참가해 그 지역사람들과 어울리는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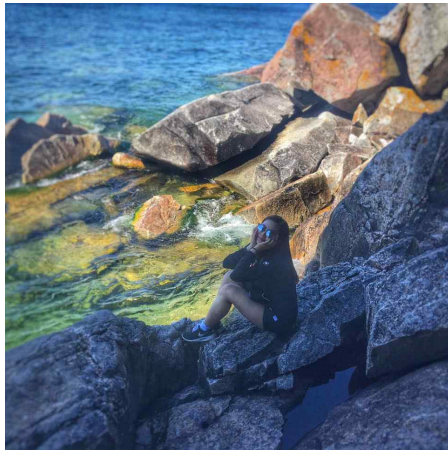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파티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미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말에 학교친구들과 다 같이 하이킹과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긴 사진입니다.